

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1.2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먼저,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성장률이 1.8%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,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.
-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「2025년 경제정책방향」을 마련했습니다.
- 무엇보다,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 -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,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“민생 신속지원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
 - 노인일자리,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.
 - 소비·건설·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특히,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,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 - 특히,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,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,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습니다.
-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 -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.
-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,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.
 -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,
 - 임시투자세액공제, 가속상각 특례 등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,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,
 -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